



교섭속보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산별현장교섭 3차 교섭보고

▲상여금 인상 ▲복리후생수당, 자기계발비 ▲코로나19 대책 마련요구 심의 의료원은 지불 능력이 없다!?

3차 산별현장교섭이 어제인 21일 오후 3시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규 교섭위원으로 사측은 김종찬 재무팀장이 노측은 서울지역본부 이근웅 사무국장, 백승민 조직부장, 안암병원 김용준 조합원이 참가했다. 김용준 조합원은 이날 교섭에서 간사를 맡았다.



한편, 김용준 조합원은 교섭위원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힘들지만 현장도 힘들다. 가족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다. 이 교섭이 현장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교섭은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이니만큼 현장에서 올라온 요구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 고 말했다.

사, 노사가 고대의료원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섭되길 노, 요구안 모두가 현장의 바람이니만큼 성의 있는 답변달라.

노사 대표위원 인사를 통해 김영훈 대표위원은 “팬데믹의 시기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이다. 고대의료원이 안고 있는 내외적인 환경에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지,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인지 노사같이 고대의료원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교섭이 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어 노재옥 대표위원은 “20일 진행한 토론회는 고대 가족들과 출신 인사들을 모셔서 진행했다. 안팎으로 관심이 높았다. 고대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제언들을 주셨고, 노조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52시간 TFT가 진행 중인데 현장의 상황이 혼란스러우니 속도를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사측이 좋은 안을 가져오시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며 지난 차수에 이어 52시간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안 심의 진행했으나, 시원한 답변 없이

‘검토해보겠다.’, ‘지불능력이 없다’

3차 교섭은 비정규직 임금 동일화 요구를 포함한 각종 수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상여금 인상 및 수당 심의에서는 ‘임금 총액의 범위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했으며 ▲비정규직 임금동일화에 대한 답변으로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요구안은 ‘산별의제니 취지만 듣겠다.’ 는 태도를 취했다. 나머지 요구안들도 시원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노사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사측 교섭위원 중 한 명은 ‘그 많은 요구안이 얼마인지 아느냐.’ 며 ‘의료원은 지불 능력이 없다.’ 며 노측 위원들을 분노케 했다.

교섭은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4차 교섭은 7월 29일 (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요구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차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심의 결과

노동조합 요구안	의료원 답변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동일화 시간제 75%, 계약직 85% → 100%	교섭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인상도 동일하게 진행했고,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진행중이다.
상여금 인상 (1080% → 1140%, 매월 90% 지급 → 매월 95% 지급)	2018년, 2019년에 인상된 부분이다. 임금인상 총액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정근수당과 상여를 월로 환산하면 100%가 넘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다. 타 사립대에 비해 뒤지지 않고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험수당 신설 (전 직원에 대해 50,000원 지급)	전 직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년도에 7만원에서 8만 5천원 인상했다. 대부분의 사립대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용하기 어렵다.
하계휴가비 신설 (기본급 50% 7월 지급)	현재 코로나시국인데 정서상 약간 어렵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자기계발비 신설 (월 50,000원 지급)	수당 항목을 계속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계발이라는 취지가 불명확하고, 명확한 범위와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임금을 높이기 위한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콜 당직 대기수당 신설 (일 당 20,000원 지급)	금액으로 해결하기보다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노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리후생수당 인상 (월 70,000원 → 월 100,000원 지급)	검토해보겠다.
급식보조비 인상 (월 97,000원 → 월 120,000원 지급)	실무에서 검토해보겠다.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재난 발생 시 병원 대책위 노조 참여 보장, 대응과정에서의 직원대처방안, 감염병 대응 방역 업무를 위한 별도 인력 배치등)	3개 병원 중회의를 통해 정부 지침이 바뀔때마다 일관된 기준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지침 내용이 확인이 어렵거나 전달이 잘 안된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병원 지침이 강력한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렇다. 노조가 잘 도와달라.
인력확충 및 불법의료 근절 ① 연차, 생휴 사용위한 인력 산출 ② 의사약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 중단 및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① 강제 연차 산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 생휴와 관련되서는 인사팀에서 각 병원에 위임을 통해 잘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② 병원협회에서도 정책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병원마다 입장이 달라 고민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힘써주면 의료원의 입장에서만 결정하지 않고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교섭위원 말. 말. 말

“고대의료원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요구안 심의가 마무리 된 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고대의료원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 실무교섭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올 해는 고대의료원의 직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말했다.

의무부총장님! 정말 열심히 일해온 최고의 자산인 직원들을 위해 꼬옥!! 선물 주실거죠? 기다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 참고 있는 거야. 올해엔 해 줘. 2. 지불 능력? 팩트 체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적립금이 625,827,248,534원이나?

사립대학교는 매년 3월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 말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5월 말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항상 나오는 항목이 있다.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려고 손금(損金)¹⁾으로 처리한 돈이다. 그렇다면,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 돈은 법인세법에 의해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며 고대의료원의 경우 병원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Q.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은 돈을 비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A. 맞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우리 직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 이룬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직원에게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만 들먹이며 쌓아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만 적립되어있는 금액이 6천 2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2020년에 860억 원이 넘는 돈을 적립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A.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전년도 A + 당해년도 E)	449,330,567,045	539,510,268,495	625,827,248,534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 증감율	34.89%	20.07%	15.99%
B.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135,145,311,780	159,000,000,000	156,000,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증감율	42.3%	17.7%	-0.02%
C. 적립 총액(전년도 A + 당해년도B)	466,258,626,612	608,330,567,045	695,510,268,495
D. 당해년도 사용액	16,928,059,567	68,820,298,550	69,683,019,961
E. 당해년도 적립(손실)액(B-D)	116,217,253,213	90,179,701,450	86,316,980,039

Q. 그래서 지불능력 있나요? 없나요?

A.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준비금으로 1천 560억 원을 적립했고, 696억 원을 사용 후 당해년도 적립액은 86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기순이익으로 64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이유로 의료원의 발전을 들먹이고 있다. 또한, 의료원 발전을 위해 65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원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작년 기본급 동결에 이어 지금의 의료원을 만들기까지 뼈와 살을 태우고 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의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혹은 직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인가! 직원들도 사람이다. 의료원을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길 바란다면, 이제 의료원의 큰 결단으로 직원들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1) 손금 : 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

2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9월 2일 총파업 결의!



지난 21일(수) 2차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임시대대)를 진행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줌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임시대대 전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직접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을 설명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영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서울지역본부 이근웅 사무국장의 교육을 통해 ‘총파업 투쟁 A to Z’ 이란 주제로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를 시작하며 노재옥 지부장은 대회사로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대대를 진행하게 되었다.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니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간부대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기 위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 회의를 선택했다. 오늘의 대대는 지난 대대에서 확정된 투쟁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리” 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경과를 발제했으며 20일(화) 진행한 ▲고대의료원 질적도약과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안건으로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결의 ▲산별현장교섭 참가 ▲총파업 결의 등이 상정되었으며 논의를 거쳐 3가지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다음은 논의안건에 대한 결과이다.

■ 보고사항

1.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보고
2.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보고
3. 고대의료원 질적도약과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보고

■ 논의안건

안건 1.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결의 건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에서 보전하기로 한 무노무임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이견 없이 승인하기로 함.

안건 2. 산별현장교섭 교섭위원 참가의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간부대의원 중 참석자를 선정하였고 추후 원하는 간부를 병원별로 확인하여 추가 확정하기로 하고 승인 함.

안건 3. 총파업 결의 건

대의원들의 각오와 결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만장일치로 결의함.